

서울남지방회 장로회, 제47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윤장성 장로 선출



서울남지방회 장로회(회장 박수남 장로)는 지난 1월 18일 서울반석교회(강성범 목사)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강성범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방회장 문재영 목사

신학교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방회 내 미자립 7개 교회에 특별선교비 각 20만 원을, 선교후원 1개 교회에 매달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회 목회자부부들과 양평 숲속작은나라에서 야외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남전도회와 부부 동반으로 연합하여 송실대 한경직기법관에서 세미나 및 영성수련회를 개최했다. 이외에도 2개월에 한 번씩 정례회와 경조사 챙기는 것은 물론 장모장립 시 금배지를 전달하며 축해해 주고 있다.

다음은 신임인 명단
 ▲회장:윤장성 ▲부회장:김용호 ▲총무:이택운 ▲부총무:박정호 ▲서기:강병익 ▲부서기:유상우 ▲회계:노재필 ▲부회계:김동영 ▲감사:박수남 이영권

서울남지방회주재기자 서경원 목사

본지후원 회장 박근주 장로, 간증집회 인도

부여성흥교회서 '구하면 주실 것이라' 주제로 진행



본지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근주 장로가 지난 2월 1일 충남지방회 성흥교회(임정분 목사) '2026년도 제작세미나 및 간증 집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6년도에 새로 임명된 제작들과 오는 7월에 인수받게 될 안수집사들을 비롯한 모든 제작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제작들의 자세에 대한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 (마 7:7-8)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제작들이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감사 박근주 장로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며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도와 어떻게 섬겼는지 생생하게 전했다.

박 장로는 "헌신과 섬김은 성공적인 예배로부터 출발함을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다"며,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고 제작들의 성숙한 섬김으로 담

임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일성수, 정결한 삶, 헌신된 헌금, 교회와 목사를 우선시 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날 담임 임정분 목사는 은혜롭게 세미나와 간증을 전한 박근주 장로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교회 제작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섬

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인후 많은 성도가 소천하였지만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등록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감동이 우리 젊은 교인들에게도 미쳤을 것이라며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근주 장로(더드림교회)는 성결대학교에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고 본지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섬기며 교회와 총회를 위해 헌신해 오고있다.

서울중부지방회, 영화 '신의 악단' 연합 관람

8개 교회 170명 참석 · 지속적 연합 사역 눈길



서울중부지방회(회장 이창원 목사) 소속 8개 교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문화로 하나 되었다. 지방회는 지난 1월 11일(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구로구 소재 씨네큐 신도림점 12층 2관을 대관하여 영화 '신의 악단'을 단체 관람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교회 성도들과 초청된 전도 대상자(대신자) 등 총 170명이 참석해 174석 규모의 상영관을 가득 메웠다. 특히 상영에 앞서 아름다운교회 '오침묵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위해 팝콘과 프링글스 등 간식을 정성껏 준비해 나누며, 연합 행사의 훈훈함을 더했다.

녹여낸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었으나, 부모님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도 함께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자리가 되었다.

관람 후 참석자들은 "북한의 현실과 신앙의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게 된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영화를 관람한 어린이들조차 "영화가 주는 감동이 컸고 가슴에 부언가 남는 것 같다"고 고백해, 문화 콘텐츠를 통한 신앙 교육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는 "작년 여름 캠프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영화 관람이라는 문화 사역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아름다운본교회의 섬김과 8개 교회의 협력이 이루어져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새해 선물이 되었다"고 전했다.

서울중부지방회의 이번 행사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연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역적 시너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중부지방회주재기자 박중대 목사

호남전도지방회, 제57회 정기지방회

신임부회장 조일형 목사



호남전도지방회가 지난 1월 30일(금) 오전 11시 함께하는교회(조일형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일형 목사의 사화로 드러진 1부

이어서 진행된 2부 정기 지방회는 임원선출과 회부처리가 있었다.

전도지방회는 현장 73조 2항에 의거하여 총회의 전도전략 상 필요 시에는 총회 결의로 국내외에 전도지방회를 조직할 수 있다. 국내는 10개 교회 이상, 해외는 5개 교회 이상으로 조직되며, 행정적으로 총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다음은 신임인 명단.
 ▲부회장 조일형 목사(함께하는교회·사진) ▲서기 성운모 목사(상반교회) ▲표명찬 목사(청산제일교회).

호남전도지방회주재기자 강일용 목사



인천서지방회, 연합 청소년 동계캠프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교회' 라는 주제로 열려



지난 1월 26일(월), 27일(화) 양일간 인천에서 인천서지방회 교육부전진우 목사 주관으로 연합 청소년 동계캠프가

있었다.

지방회장 유상민 목사(한우리교회)의 개최 설교와 함께 시작한 이번 연합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의 신앙부흥을 목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지방회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 낮 시간 특강 및 찬양, 프로그램을 인도했고 저녁 강사로는 첫날 민호기 목사, 둘째 날 박현동 목사가 나섰다.

인천서지방회에서는 다년간 연합 캠프를 진행해 온 바 그 안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인천서지방회주재기자 정병철 목사

헤세드공동체교회 창립감사예배

담임 송운유 전도사



서울지방회 헤세드공동체교회가 지난 1월 24일(토) 오후 2시 30분에 종로문화원 3층 강의실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

렸다.

지방회부회장 진순찬 목사의 사화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지방회부회장 김용빈

장로의 기도, 지방회서기 이강호 목사의 성경봉독, 성경교신학교 및 성결교신대원 학우, 헤세드공동체성도들의 특송, 지방회장 이규 목사의 '생명과 풍성함을 공급하라'(요 10:10)라는 제하의 설교, 지방회부서기 이규현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창립예식에서는 동부감찰장 신동선 목사의 인도하에 예식사, 이규 목사의 창립사약과 창립선언 및 치리목사 파송, 동부감찰회 서기 차은천 목사의 교회창립보고, 송운유 담임전도사의 결의문 낭독, 총회성결교신학교 학장 김순홍 목사의 격려사, 성결신대원 원장 서영민 목사의 축사, 지방회장 이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현관식을 끝으로 창립예배를 마쳤다.

서울지방회주재기자 이강호 목사

광주지방회, 신년하례회

새로운 연합과 부흥 이루는 지방회 되길 소망



광주지방회(회장 박홍준 목사)는 지난 1월 12일(월)~13일(화)에 여수 오션힐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로 모임을 가졌다. 지방회 목회자 부부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포석봉 목사에(성교회)가 사회를, 이정관 목사(한빛교회)가 기도를, 박정택 목사(샘솟는교회)가 전도서 4장 9절-10절을 본문으로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모임에서는 여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애찬을 나누고 인근에 있는 항일암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며 올해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연합과 부흥을 이루는 지방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광주지방회주재기자 이곤민 목사

광주지방회, 임시지방회 개최

서남지방회와의 통합에 대한 의견 나누



광주지방회(회장 박홍준 목사)는 1월 12일(월)에 오션힐호텔에서 임시지방회

를 하였다. 지난해 11월 교역자 월례회 때 서남지방회와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임원들 중심으로 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남지방회 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임시지방회를 통해서 과반이 넘는 목회자가 서남지방회와의 통합에 찬성하여 통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박종영 박정택 이정관 목사를 민장임치 통합추진위원으로 추대하였다.

(가칭) 전남광주지방회 제57회 정기지방회는 오는 3월 9일(월)~10일(화)에 여수 오션힐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방회주재기자 이곤민 목사